신비의 문

(요10:7~15)

7.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8.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9.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0.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11.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2. 삯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헤치느니라
13.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삯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14.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신비의 문>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삶을 추진해 가는 원동력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있어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 전체는 날마다 문을 통과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전혀 다른 장소로 들어갈 때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인생에는 수없이 많은 문이 놓여 져 있어요.
우린 그것을 등용문이라고도 하고 입시문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관문이 있습니다.

관문이라는 것은 어떤 지점을 향해서 갈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길목 아니겠어요?
취직이라는 관문, 결혼이라는 관문, 승진이라는 관문 등, 다~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렇게 문을 통과하려 애쓰고, 혹은 원치 않는 문을 통과할 때는 잘 버티기 위해 애쓰고 그러는데, 신비의 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신비의 문인가 하면, 이 문만 열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인생의 그 어떤 관문도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문이기 때문입니다.
요 문 하나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의 다른 문들은 등용문이건 입시문이건 생각할 필요도 신경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되게끔 되는 것뿐이지 그걸 신경 쓸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의 문만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의 문인데, 신비의 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당신 자신을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이 누굽니까? 우리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자들, 우리가 바로 양들이에요.
그러므로 양의 문이라고 하면, 우리가 들어가야 될 문이 예수님인데,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 문으로만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단 하나의 문도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만사가 다 OK! 라는 겁니다.

중동지역에서 좋은 목초지 하나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양들을 다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하루만 머무는 게 아니라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곳에 머물러서 풀이 허락되는 한, 양들을 거기에서 먹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날마다 거기서 밤을 지새우게 되지요.
그럴 때 우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그 들판에 흩어져 있는 돌들을 주워다가 나지막하게 원형으로 울타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리를 벌려서 얼마든지 넘어올 수 있는 나지막한 울타리이죠.
그리고는 출입구를 만드는데, 문짝이 없는 출입구에요.
문짝이 없는 출입구에는 밤에 양들을 다 우리에 몰아넣고 목자가 거기서 자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목자는 곧 양의 문이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들어오라’

자! 그러면,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디에 도달하는 겁니까?
본문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진짜 양의 문이 되시는 목자들을 통해서 양들이 들어가는 곳은 양의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팝콘 먹고 콜라 마시며 시간을 기다리다가 상영시간이 돼서 극장문을 열고 들어가면 깜깜하지 않습니까, 또 신데렐라가 멋진 드레스를 입고 파티가 열리고 있는 홀로 인도받아서 그 홀의 문이 활~짝 열리고 들어가게 될 때 얼마나 굉장하겠어요?
이 문이 열리면 도대체 어떤 상황이 내 앞에 나타나게 될까?
예수님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구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이 상황을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갔을 때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서 맞이하게 되는 상황을 한 마디로 요약한 성경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해 들어갈 때 우리 마음이 하늘에 앉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사도바울이 한 마디로 써놓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우리 마음이 하늘에 앉게 된다는 얘깁니다.
여기에 치명적이고 궁극적인 오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천국을 죽은 다음에 가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치명적인 오해에요.
치명적이라는 것은 기독교 전체를 잘못 이해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직장에 가 있을 때, 몸은 직장에 있지만 우리 마음은 하늘에 앉아있는 겁니다.

하늘에 앉아서 직장생활을 하는 겁니다.
천국에 앉아서 가정생활을 합니다, 천국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친구를 만납니다, 천국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장을 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 마음이 천국에 가 앉아있는 상태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것이 구원이 아니라, 지금 하늘에 앉아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다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음이 지금 천국에 가 앉아있어서 직장에 갔습니다.
이 현실에서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내 마음은 직장에서 말단직원이지만, 그래서 부장님도 과장님도 대리조차도 나를 우습게 여겨서 야단을 치지만 내 마음은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힌바 된 상태에서 어디에 앉아있는 겁니까? 내 직장의 사장님은 사장자리에 앉아있고, 부장님은 부장자리에 앉아있지만 나는 지금 천국에 앉아있는 거예요.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식탁에 내 몸이 앉아있지만 내 마음은 천국에 앉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 몸이 살아있는 곳은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며 나가며'라는 뜻은 이 세상의 삶이 진행되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일을 시작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고, 어디로 갈 때가 있고 돌아올 때가 있고, 이게 다 '들어가며 나가며'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몸이 살아서 삶이 진행되고 있는 이곳에는 무엇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앉아있는 내 마음에는 천국과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꼴로 배부르게 되고, 내 몸이 살아서 진행되는 내 삶에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가득 차서 내 삶이 배부르게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배부르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면서 그 결실로 배부르게 되고…
그래서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게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여기서 도둑이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하늘에 앉힌바 되게 됩니다.
그러면 도둑은 뭐에요?
하늘에 가있어야 될 내 마음을 반대방향으로 이 땅 쪽으로 끌어당기는 게 도둑이라는 겁니다.
죽이고 멸망시킨다, 이 땅 쪽으로 끌어당겨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하늘에 앉는 것 대신에 직장 한 가운데 앉아있고, 그래서 승진하려고 발버둥치고 있고, 가정에서 자식 한번 잘 키워보겠다고 발버둥치고 있고, 아내와 남편이 늘 티격태격 가정사로 싸우고 있고, 온통 마음이 이 세상 쪽으로 끌어당겨져 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우리 마음을 도둑질해가지고 이쪽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전히 하늘로부터 끊어진 상태, 천국에 앉아있지 않고 이 세상 한 가운데 앉아있고 거기서 뒹굴고 사는 것, 이게 바로 죽음이에요.
도둑질은 천국에 앉아있어야 될 우리 마음을 땅으로 끌어당긴 것이고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완전히 하늘을 잊어버리고 이 땅의 문제 안에서 뒹굴고 있는 상태, 그리고 멸망은 이 몸이 죽어서 삶이 끝날 때, 짜잔~ 하고 문이 열리는데 영원한 지옥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둑질 합니다.
우리 마음을 하늘에서 도둑질해서 이 땅에 꼬나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뒹굴며 살아갑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 몸이 죽을 때 짜잔 하고 열리는 지옥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게 멸망입니다.

반대로 양의 문이신 예수님에게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다고 했습니다, 생명이 뭐라고 했지요?
내 마음이 너~무 좋고 너무너무 절대적으로 좋아해서 그것이 없으면 내 마음이 살아갈 의미가 없으며 살아갈 의욕을 상실하고, 살 수 있는 힘을 얻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나인성 과부에게는 자식이 생명이고, 평생을 바쳐서 일군 사업가에게는 그 사업장이 생명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열애에 빠져있는 연인에게는 애인이 생명이 되는 것이고… 다~ 가짜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살아갈 의미를 발견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오리지널한 유일한 생명은 하나님뿐이란 얘깁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 마귀의 꾐을 받아서 하나님 이외의 다른 가짜 생명들을 생명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오리지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모셔 들이게 되고, 하나님 때문에 살게 되는데,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이상한 것은 애인과 사귀다 좋아서 결혼하고 3년이면 권태기에 들어가는데, 돈 많이 벌어서 좋은 것은 좋아봤자 그 수준에 머물거나 돈 때문에 망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좋아서 마음에 모셔 들이게 되면 무한히 풍성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한히 깊어지고 무한히 넓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풍성해진다는 얘깁니다.

이런데 여기에 이리와 삯군이 등장을 합니다.
삯군과 이리가 대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누구이며 무엇입니까?
이리가 누구에요?
여기 보면, 물고 해친다고 해요, 삯군 목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이리가 와서 물고 해친다.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어야 될 내 마음을 이 땅에서 이리와 같은 이빨로 내 마음을 물어서 질겅질겅 씹고 이 세상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모든 게 다 이리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물리고 있다는 게 어떤 걸까요?
내가 지금 온 마음을 다해서 생각하고 있고 몰입되어 있는 상태, 이게 바로 마음이 물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이렇게 물고 있는 것이 이리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열애중인 남녀 간에는 애인이 내 마음을 무는 이리가 됩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하늘나라에 앉아있지 못하게 합니다, 오직 자기 생각만 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이리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물어 젖히는 거예요.
사업가에게는 사업이 이리일 수 있고, 자식에게 빠져있는 부모에게는 자식이 이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식에게 평생 마음이 물려 있어서 땅에서 뒹굴고 있느니 자식이 없는 게 나아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물고 물려서 땅에서 뒹굴고 있을 바에는 결혼 안 하는 게 낫다 이겁니다.
내 마음을 물고 있는 이리가 돼버린 사업장을 왜 갖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이리라는 거예요.
욥의 경우를 생각하면, 재산을 잃고, 자식을 열을 잃고, 건강을 잃고, 아내와 친구, 사회적인 존경과 자존심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게 다 이리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이리에요, 이 땅에서 마음을 물고 놔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 삯군은 뭡니까?
자, 사업 때문에 걱정이 가득 합니다, 사업이라는 이리에게 물렸어요.
그런데도 이 이리를 떼 낼 생각을 안 하고 교회에 갖고 옵니다, 그대로 이리를 껴안고 와요.
사업문제를 안고 오는 거예요.
사업문제를 안고 와서 목사님께 상담을 하니까, 목사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업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루 한 끼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이건 무슨 얘긴가 하면, '완전히 그 사업문제 때문에 몸에도 병이 생기고 마음이 녹다운 될 때까지 그 사업이라는 이리가 질겅질겅 씹어서 완전히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이리야! 이 교인의 심령을 물고 있어라!'라고 권면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에요.
이게 바로 삯군이라는 거예요.
삯군은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힌바 되어야 될 마음인 것을 안 봅니다.
그래서 어떡하든지 이 땅에서 무엇엔가 이리에게 물려있는 마음을 빼내서 하나님께로 올려야 된다는 마음이 없는 자들이 바로 삯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에 물려있는 마음의 상태를 더 깊이깊이 이리가 마음 놓고 물도록 해줍니다.
아, 기가 막힌 거죠.

사업이 위태로운 사업가인 집사님에게 정말 문제는 사업이 망하는 것이 1차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1차적인 문제는 위태로운 사업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나라에 가있지 못하고, 하나님나라를 빼앗기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이 상태가 문제라는 것을 삯군 목자는 간과해버립니다, 방치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철없는 교인들이 내가 사업 때문에 마음이 빼앗겨서 이 사업이 잘되기를 바라며 상담하는 것을 사업이 잘될 때까지 우리 기도하자고 해서 사업이라는 이리에게 아주 울타리를 쳐주고 마음 놓고 그 교인의 심령을 씹어 먹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게 바로 삯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11절과 15절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뜻 보면, 목숨을 버릴 각오로 살아서 양을 지키셔야지, 왜 양을 지키시려는 분이 목숨을 버립니까? 그 다음에는 양들은 어떡하라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계속 십자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5절 '내가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든 것 같이 들려야 하리니…'로부터 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은 십자가얘기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까?
자, 자식이라는 이리가 내 마음을 물고 있다, 사업이라는 이리가 내 마음을 물고 있다, 건강이라는 이리가 내 마음을 물고 있다, 이때 어떻게 이 이리들로부터 양인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 십자가 문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내 마음이 자식에 대해 사업에 대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끝이 납니다, 그래야 이리의 이빨로부터 풀려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마음에는 사업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사업에 물려있던 상태에서 그 사업이라는 이리의 이빨로부터 풀려나 가지고 마음은 하늘로 가득 차 평강이 가득하고, 내 마음이 떠난 사업장에는 사업장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내려와 임하고 성취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문을 통과할 때, 이리로 변했던 사업이 비로소 사업답게 됩니다, 이리로 변했던 자식들이 비로소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리로 변했던 애인이 비로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애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애인,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업장, 하나님의 뜻이 이끌어가는 자식이 됨으로써, 진짜 자식, 진짜 애인, 진짜 사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죽으심을 따라 십자가의 문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나를 무는 이리가 자식이고, 나

를 무는 이리가 사업이고, 나를 무는 이리가 애인입니다.
내가 그것들에 대해 죽을 때라야 비로소 그것들은 진정한 자식이 되고, 진정한 사업이 되고, 진정한 애인이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아! 신기하잖아요?
주님의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의 문이 십자가에서 열려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대해 죽었다고 하면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렇게 들어갈 때 마음은 하늘에 앉게 되고, 내 몸이 있는 곳 내 몸이 가는 곳 들어가며 나가며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지, 꼴이 풍성한 것은 그것을 향한 그 때를 향한, 그 일을 향한 그 장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려와서 성취되어가며 결실이 풍성하게 되니까, 등용문 들어가려 애쓸 것 없고, 입시문 통과하려고 애쓸 것 없습니다.
입시문이고 등용문이고, 결혼의 관문, 승진 관문,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다른 길이 열릴 것이니, 우리는 오직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문에 들어가는 것 한 가지만 힘쓰면 만사가 오케이가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이렇게 세상 살기가 쉽고 재미있을까요?
오직 신비의 문이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문 하나만 오늘도 들어가기를 힘쓰며 살아갑니다.
나가며 들어가며 얻게 되는 꼴을 먹고 배부름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